



바퀴로 어르신들의  
편리한 이동을 돕는  
것이 내 일입니다

# TOGETHER<sup>+</sup>

## 함께

Vol.25 2018 SPRING

### COVER STORY

양천구 문화복합시설에 입주한 아이디어 단계의 창업팀을 지원하는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팀들 가운데 빈곤노인 문제, 노인 낙상예방사업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을 소개합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다리가 되어드릴 수 있도록 낙상예방교육, 낙상예방 제품인 실버카 등을 판매하는 해피에이징 권경혁 대표님이 이번 호의 주인공입니다.

# “사회에 안정감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매트리스가 되겠습니다”

글 | 일자리증진팀 정승훈 선임매니저



안녕하세요. 함께일하는재단을 아껴주시고 또 재단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를 응원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댁내 행복한 기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함께일하는재단에서 사회적기업과 창업기업의 성장지원 및 육성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증진팀 정승훈 매니저입니다.

작년 7월 딱딱딱한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어느덧 8개월 차에 접어들었네요. 저는 요즘 한국전력공사의 후원금을 지원받아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클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기업들이 자금 모금을 잘할 수 있도록 중간 매개체가 되어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이익과 지속가능성 등의 가치를 추구하며 재화 혹은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경제조직입니다. 이런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멋진 20개의 기업이 4월 한 달 간 온라인 클라우드펀딩 플랫폼과 TV홈쇼핑을 통해 소비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 진행될 4월 클라우드펀딩 진행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발 아래 매트리스가 하나씩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매트리스의 두께는 바로 경험입니다. 폭신해질수록 넘어지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고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열정을 줍니다. 재단은 우리 사회 구성원의 발 아래 또 하나의 안정감 있는 사회적 매트리스가 놓일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제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단을 지지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재단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션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여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비전 2025 시민사회의 자발성을 통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가장 신뢰받는 기관

Vol.25 2018 SPRING

발행인 송월주 | 발행일 2018년 2월 28일 | 발행처 (재)함께일하는재단  
주소 (03992)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36 | 대표전화 02-338-0019  
홈페이지 <http://www.hamkke.org>  
기획·편집 (재)함께일하는재단 | 디자인 오즈커뮤니케이션  
후원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513-196182-13-105 / 국민은행 032901-04-181772  
농협 301-0011-3418-11 / 신한은행 140-008-341200  
● 'TOGETHER+ 함께'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임의로 복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CONTENTS

- |   |  |
|---|--|
| 04) <b>일자리 기획칼럼</b><br>특집 기획<br>현장을 이해한 청년실업 정책의 필요성                                | 12) <b>함께하는 일의 흥미</b><br>일하는 물<br>필요한 곳에 항상 내가 있지<br>휠잡스(wheel jobs) |
| 06) <b>함께하는 일의 의미</b><br>현장 속으로 1<br>교통약자를 위한 포티케어 서비스<br>공향을 이용하는 이동약자의 발이 되어 드려요! | 14) <b>내일에서 on 편지</b><br>인터뷰<br>취업부일체<br>어서 와, 취업은 처음이지?             |
| 09) <b>현장 이슈</b><br>2018년도 스마트투게더파트너십<br>새로운 참여기관을 소개합니다                            | 18) <b>재단소식</b><br>재단 동향 및 이슈  |
| 10) <b>현장 속으로 2</b><br>스마트투게더파트너십이 찾아준 지역의 행복                                       |  |

# 현장을 이해한 청년실업 정책의 필요성

졸업 이후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시즌 상반기가 다가오고 있다. 아직도 대학가에는 취업을 하지 못한 졸업유예자가 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청년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청년실업 문제,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김지예 운영이사는 청년실업의 문제를 직장 내 기성세대와 젊은이들 간 가치관 격차에서 찾는다. 일은 적당히, 자신의 생활이 중요한 현세대의 가치관에 따르면 출세가 더 이상 직장에서의 당근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에 맞는, 현장을 이해한 청년실업 정책이 필요한 때다. 직장인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회사에 입사하지 않고도 그 회사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볼 수 있는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잡플래닛 김지예 운영이사에게 청년실업 현황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들어본다.

글 | 잡플래닛 김지예 운영이사 편집 | 경영지원팀 민세희 선임매니저



잡플래닛 김지예 운영이사

##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실업 문제를 국가적 재앙에 비유했다. 지난 10년 간 21차례에 걸쳐 대책이 나왔고 최근 5년 간 10조원을 쏟아 부었다. 결과는 2000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의 청년실업률 9.9%라는 숫자였다. 시간과 돈을 썼지만 상황은 악화됐다.

청와대는 일자리 수석을 만들었다. 부처 간의 협력도 늘렸다.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까? 정책을 살펴보자. 예컨대,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 중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하며 300만 원을 적립할 경우 정부 등이 1,600만 원으로 불러주는 제도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처우 불균형을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하면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까? 아니면 이 정도로는 대기업과의 처우 격차를 줄이기 어려워서 효용이 없는 걸까?

## 청년실업의 원인은 무엇인가

청년실업의 원인을 '청년들의 태도'에서 찾는 분석도 있다. 대다수의 청년들이 생산적인 활동을 하려 하지 않고 단기적인 즐거움만 추구하려는 태도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 증거로 최근 청년들이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개인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언급한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청년들은 취업에 있어 좋은 처우 조건과 워라밸에 가치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은 정말 워라밸과 처우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그렇다면 월급도 얼마 안되면서 밥 먹

듯이 밤샘 근무를 해야 하는 대다수의 스타트업에는 지원자가 없어야 한다.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대안일까?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의 창업 실패율은 세상 모두가 알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 기성세대와 현세대 가치관 격차

필자는 잡플래닛을 운영하며 취업 현장에서 청년들을 만나보았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워라밸과 처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다. 표면적으로는 말이다.

기성세대는 청년이 말하는 '워라밸'을 '게으름 부릴 수 있는 자유'로 해석한다. 그러나 청년에게 '워라밸'이란 하나의 인권이다. 잡플래닛은 국내 100인 이상 사업장 중 98% 기업에 대한 기업 평가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40%가 넘는 기업의 근로자가 스스로의 상태를 '노예', '소모품', '기계' 같은 비인간적인 단어로 비하한다.

워라밸은 업무의 강도가 강하더라도 존중받는 기업 문화를 가진 기업에 대한 바람이다. 그런데 그런 회사가 많지 않으니 최소한 워라밸을 통해 정해진 시간만큼만 '기계가 되겠다'는 각오인 셈이다. '처우'도 마찬가지다. 어차피 구를 거, 할값에 구르지는 않겠다는 생각이다.

##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의 도입

중소기업을 피하려는 이유는 또 있다. 평생 직장이 없어진 지금 첫 직장에서의 성장과 커리어는 중요하다. 그런데 멘토도 없고 성장 기회도 없는 중소기업에서 청년들이 어떤 미래를 그릴 수 있을까? 여기까지 고려하면, 설령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대기업과의 처우 불균형을 완벽하게 해소해주는 수준이 되더라도 중소기업을 선택하기는 어렵다. 그러기에는 저당 잡혀야 할 미래와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

## 현장을 이해한 청년실업 정책의 필요성

청년실업이 말 그대로 국가적 재앙이라면, 기존 대책을 답습하지 말고 좀 더 다양한 시도를 권장한다. 예컨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커리어 상담과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비를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기업에 대한 지원 역시 무조건 청년 채용만 볼 것이 아니라, 청년 2명을 고용하면 동일 직군 경력직 1명을 신규 채용하는 데 필요한 혜택을 제공해 기업의 성장과 청년의 성장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

기업을 구분해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기업은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현장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나쁜 일자리를 가진 기업은 일자리 개선을 1차 목표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야 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고 해도 나쁜 일자리만 양산해서는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청년실업 문제를 단기간에 극복하긴 힘들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문제일 리도 없다. 필요한 것은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현장'을 전제로 한 실효성 있는 조치다. 이제 책상과 서류를 벗어나 현장으로 고개를 돌려야 할 때다.

» 함께일하는재단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 취업역량 강화 프로젝트, 청년들에게 공유공간을 제공해 주거문제를 해소하고 취업준비를 지원하는 허그 셰어하우스, 청년응원 캠페인 등을 진행해 현실에 지친 청년들을 응원하고 양질의 일자리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교통약자를 위한 포티케어 서비스 공항을 이용하는 이동약자의 발이 되어 드려요!



한국공항공사와 함께일하는재단은 공항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포티케어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지하철 연결통로부터 공항까지 이동에 필요한 전동카트를 신규로 도입하여, 교통약자가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 출국수속, 목적지인 공항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동행하는 서비스입니다. 한국공항공사 캐릭터인 포티가 공항 이용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존 포티케어 서비스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했다면 올해는 채용인력의 50%를 60세 이상의 전문인력으로 선발하여 시니어 일자리와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총 22명의 포티케어 종사자 분들을 대상으로 김포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사전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공항이라는 장소적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공항에 상주하고 있는 안전요원들이 직접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에 대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공항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드리기 위한 서비스 마인드 훈련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서비스가 좋아져 이용객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안전한 공항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단은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공항을 이용하는 이동약자를 대상으로 포티케어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영유아를 동반하신 분, 많은 짐을 들고 있어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공항 내에서 편리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채용인력의 50%를 60세 이상의 전문인력으로 선발하여 시니어 일자리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공항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 인터뷰 | 경영지원팀 민세희 선임매니저

“작은 친절이  
큰 기쁨이 됩니다.”

이강백 포티케어

한 달 여 포티케어 종사자로 근무하셨는데, 실제로 근무해 보니 어떠셨어요?

지금은 제 나이가 60을 넘었지만 나이가 들어도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요. 사회생활을 하며 사람들과 접촉해야 덜 늙고 생활의 활력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포티케어 서비스가 좋은 부분은 나이가 들어서도 활동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도 베풀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이에요. 제가 베푼 작은 친절이 상대방을 매우 기쁘게 하니가 일을 하면서도 에너지를 얻는 기분이예요.

포티케어 서비스의 어떤 매력 때문에 지원하게 되신 건가요?

개인적인 장점은 공항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분이 좋은 상태인데, 서비스를 받으면서 더 큰 행복감을 서로 공유하며 일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집에서 있는 것보다 오픈된 공간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더 좋잖아요.

시니어 연령대에서 충분히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나요?

시니어들은 기동성이 떨어지는 반면 양보정신과 희생정신이 젊은이들보다 더 크죠. 저도 시니어에 속하지만 기동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본인이 운동을 해서 체력을 단련해 갖춰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일 자체가 체력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포티케어 종사자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명랑, 유쾌, 친절한 성격이라면 더 좋겠죠. 카트운전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길을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어학을 잘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업의 애로사항이나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애로사항보다 개선점이라면 김포공항 포티케어 서비스는 이제 시작된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 매뉴얼을 계속 데이터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데이터를 구축해 효율적인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제라고 생각해요.



“대국민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근 포티케어



포티케어 서비스의 어떤 매력 때문에 지원하게 되신 건가요?

일하는 곳이 집 근처라는 이유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이 만큼 들어본 것도 처음이라서 다시 지원하게 됐어요. 가게에 보탬이 되는 측면도 있고요.

포티케어 서비스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공항에 비행기를 이용하러 오신 분들 중에는 몸이 피곤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면 고마워하고 만족스러워하시니까 전반적으로 공항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 공항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포티케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사업모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자연스럽게 포티케어사업이 시행될 수 있게 하려면 각 항공사에서 몸이 불편한 분들을 공항 내 상주하는 포티케어 종사자에게 인계해 줄 수 있어야 사업이 지속가능할 거예요. 잠시 카트운행이 중단되었을 때 몇몇 분들이 오셔서 '지금은 카트 운행을 하지 않느냐'며 아쉬워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실수요자는 있다고 생각해요.

사업의 애로사항이나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우선 이동약자 대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이나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느 장소에 가면 카트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표지판을 통해서라도 대중들에게 인지될 필요가 있어요. 포티케어 서비스가 아직 처음 도입단계이다 보니 사람들이 낯설어하기도 하는데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공항을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슬기로운 공항생활

포티케어 서비스 이렇게 이용해 주세요

포티케어 서비스 이용방법

- ① 한국공항공사 콜센터 1661-2626으로 전화
- ② 당일 이용공항의 헬프포인트나 안내 카운터에서 서비스 요청 가능

서비스 이용대상

- ①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영유아를 동반하신 분
- ② 많은 짐을 들고있어 이동이 불편하신 분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 ① 비행기 탑승 이틀 전 사전예약 필수
- ② 약속한 시간에서 10분이 지나면 서비스 자동취소

히트다, 히트!!

2018년도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 새로운 참여기관을 소개합니다



국가/지역 필리핀/다바오섬  
기관명 언라드 카바얀 코코허스크 (Unlad Kabayan Cocohusk Social Enterprise Cluster)

자연분해되는 코코넛 부산물을 활용한 지역 기반 초기 사회적기업 코코넛허스크(cocohusk)를 이용해 수공예 발매트와 러그 등을 생산하고, 코코피트(coco peat)를 활용해 친환경 분갈이 토양 등을 생산합니다. 이러한 지역 생산품을 이용해 지역 여성과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돕습니다.



국가/지역 인도네시아/솔라섬  
기관명 두안암(Du'Anyam)

팔미라 야자수잎을 활용해 가내 수공예 매트와 잡화를 생산합니다. 또한 제품에 전통방식을 계승 발전시켜 지역 직조전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 여성의 소득 창출로 권한신장과 아동보육 향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국가/지역 필리핀/사마르섬  
기관명 우븐(Wovencrafts Inc.)

필리핀 태풍 하이옌으로 초토화된 사마르섬에서 지역산물인 티콕을 활용한 수공예작품을 현대적으로 디자인하여 생산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해당 지역의 여성에게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전통직조 및 자수문화를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역 말레이시아/곰박  
기관명 곰박지역 사회서비스 및 지역 사회개발연맹(PSPK)

봉재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류와 침구 제품 생산사업을 하는 초기 사회적기업입니다. 도시 외곽지역 가정 폭력, 소외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긴급구호, 생활안정, 직업훈련, 임시보호소를 제공하는 NGO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역 미얀마/양곤  
기관명 링키지 직업훈련 레스토랑 (Linkage Training Restaurant)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취약한 가정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양곤 지역에서 미얀마 요리 레스토랑을 운영합니다. 외식사업 직업훈련을 진행하고, 졸업하는 훈련생에게는 취업연계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국가/지역 탄자니아/모로고로  
기관명 가나안 탄자니아 리더십센터 (Canaan Tunaweza Leadership Center)

유기농 양계 및 양돈사업, 사료 배합사업, 계란 판매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와 빈곤퇴출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누구든 차별받지 않도록

#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이 찾아준 지역의 행복

재단은 해외 빈곤아동-가정지원 사업으로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STP)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개발도상국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으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호에는 세계 각국의 STP 파트너 기관 중 국가적 빈곤으로 충분한 영양 섭취가 어려운 동티모르, 장애인을 대상으로 체험학습과 직업교육활동을 하는 카자흐스탄의 마을 아이들을 통해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글 | 국제협력팀 홍지현 인턴 편집 | 경영지원팀 민세희 선임매니저



1



2

국가적 빈곤으로 충분한 영양 섭취가 어려운 동티모르  
“영양교육을 듣고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기로 다짐했어요”

인도네시아 발리의 동쪽, 비행기로 약 2시간 거리에 작은 섬나라 동티모르가 있습니다. 동티모르는 2014년 기준 국민의 41.8%가 빈곤선 아래 수준에서 살고 있는 나라로 아이들이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기 힘든 환경입니다. 게다가 주변 국가에서 수입되는 인스턴트 라면, 조미료와 인공색소가 첨가된 과자 등에 아이들이 쉽게 노출되어 있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촌나눔운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기업인 ‘티모르게이터쿠키(Timorgator Cookie)’는 영양다과를 만들고 영양에 대해 교육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싸(Raca) 초등학교에서 진행한 티모르게이터쿠키 영양교육에 참가한 40명의 학생들은 5대 영양소와 그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동티모르 현지 음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티모르게이터쿠키의 영양다과가 학교에 지원되었습니다. 최대한 현지의 재료만을 이용하여 마을 생산자들이 직접 생산한 쿠키, 조각 케이크, 연유 등을 아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교육을 들던 아이들의 밝은 눈빛, 영양다과를 받아 들며 즐거워하던 아이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현지에서 나는 식품을 왜 많이 먹어야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가 주시는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을 거예요.”

### 현지 학생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년 교육과 지원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라싸 초등학교 선생님**

“핸드메이드카페는  
오늘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카자흐스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장애인을 대상으로 체험학습과 직업교육활동을 하는 카자흐스탄  
“재미있는 활동과 직업교육을 통해 스스로,  
또 함께 사는 법을 배우요”

카자흐스탄 알마티(Almaty)에는 지역 내 6,000여 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기농 음식 및 예술교육 체험형 '핸드메이드카페'가 있습니다. 엘다니 재단(Eldany Charitable Foundation)이 운영하는 핸드메이드카페는 장애인 빈곤가정을 지원하고 젊은 장애인 청년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그들이 사회 안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아이들도 핸드메이드카페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해 장애, 비장애를 가진 친구들과 서로 어울리고 함께 교육을 받으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장소가 변화하면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도 점차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카페를 통해 장애인을 아이로 둔 어머니들도 아이에게 긍정적이고 자랑스러운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핸드메이드카페는 오늘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카자흐스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Quiz

재단에서 진행하는 해외 빈곤아동-가정지원 사업의 명칭을 보내주세요.

(shmin2016@hamkke.org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선정되신 분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1. 학생들이 영양다과를 받는 모습
2. 영양다과를 만드는 모습
3. 카페에서 진행한 이벤트에 참여한 아이들
4. 예술교육 체험활동에서 만든 장식품



4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아이가 카페에서 진행한 파티에 세 번 참석한 이후 달라졌어요. 두 시간 정도 어머니와 떨어져 아이들과 놀거나 새로운 음식 먹기를 시도하기도 했거든요. 저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면서 아이의 어머니에게 아이가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장소의 변화로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더 자주 카페에 놀러오기를 권했어요.”

### 핸드메이드카페 담당자

노인들을 위한  
발과 같은 존재예요

해피에이징  
(권경혁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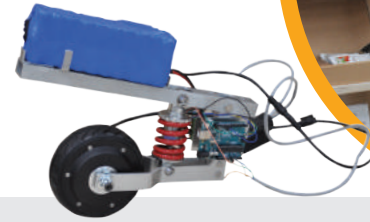
바퀴는 보행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위한 발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좋은 바퀴를 만드는 것은 어르신들에게 좋은 다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죠. 무릎이 아파서 밖에 못 나가던 어르신들이 실버카 사용으로 활동력이 높아졌다고 하시면 보람을 느껴요. 앞으로 노인들에게 보행수단이 되어주는 내구성 있는 바퀴를 만들 계획이에요.



바퀴는 달같이며  
수단이에요

리베라빗  
(원영오 대표)

리베라빗에게 바퀴는 달같이자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이동에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이동수단이 되며 그 분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달같은 깨어날 준비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기관은 달같이 비유가 가능해요. 개인적으로 바퀴는 지구상에서 두세 번째로 위대한 발견인 것 같아요. 뉴턴의 사과처럼 말이예요.



# 필요한 곳에 항상 내가 있지

## 휠 잡스 wheel jobs

같은 소재나 물건으로 저마다 다양한 직종에서 전문성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과 관련된 도구를 다채롭게 활용하는 재미있는 직업의 세계를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직장인들이 출퇴근하면서 자주 애용하는 이동수단임에도 평소 잘 인식하지 못하는 바퀴를 활용한 직업군들을 만나보았습니다. 함께일하는재단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가운데 바퀴를 사용하는 창업팀을 만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 바퀴를 도구로 활용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지역개발금고 사업 참여 기관을 만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글·취재 | 경영지원팀 민세희 선임매니저

시민과 단체를  
연결하는 허브라고  
생각해요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김진태 이사장)

바퀴는 연결이라고 생각해요.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은 전국에 있는 자전거 관련 단체들과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을 연결해주는 허브예요. 단체를 연결할 수 있는 소통의 구조이기도 하고 마을과 마을을 이동하며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의 수단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바퀴는 연대와 연결이에요.



고객과 기사님을  
이어주는 도구예요

짐싸  
(한성배 대표)

이사가 필요한 고객과 기사님을 이어주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동용 차량이 필요하고 차량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바퀴가 필요하잖아요. 안전한 이사를 도와주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사용되는 바퀴는, 매일 트럭을 몰고 지역을 오고가는 기사님들에게 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학생 졸업시즌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이 기간에 '취준생'만큼이나 현업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느라 바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취준생들을 취업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상담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취업상담사분들입니다. 취준생들을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취업상담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내일에서 on 편지'가 찾아갔습니다. 내일에서 on 편지는 청년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는 릴레이 기부 캠페인입니다.

인터뷰 |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성공패키지 김용숙 단장  
글·취재 | 경영지원팀 민세희 선임매니저

**취업성공패키지 one-stop 서비스**

저는 현재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층,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진로설정, 교육훈련안내, 취업알선까지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고용노동부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제가 취업과 관련된 상담업무를 5년 차 진행하고 있으니, 1년에 80~120명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까지 500여 명에 대한 상담업무를 진행했네요. 취업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주로 재취업이나 경력단절된 청년층, 여성분들이 있고 대상층은 다양해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육아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되고, 남성분들은 퇴직 이후 일자리를 찾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영업의 경우는 폐업 때문에 찾아오기도 하고요. 예전에 제가 상담했던 분 가운데 공무원시험 준비를 10년 정도 했던 분이 계셨어요. 센터에 상담하러 방문하셨을 때 고민이 많으셨지만 직업훈련으로 경리사무원을 배우고 회계사무원으로 취업해 그 업무를 꾸준히 한 경우를 봤어요. 조언이나 단계별 상담을 통해

훈련을 받고 자신의 길을 찾아 취업하는 과정을 봤을 때 부듯했죠.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기까지**

저는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일은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일단은 제 전공이 사회복지 쪽이기도 하고 교육훈련 분야에 관심이 있어 일하다가 지금은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됐어요. 이전에도 여성기관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여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았죠. 이전에는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청년과 중장년층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어요.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직업상담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해요.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취업상담이나 알선과 같이 취업관련 일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저는 직업을 선택할 때 직업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일을 하고 경력을 쌓다보면 일을 통한 성취감이 필요하고 사회에 보람이 되는 일들이 직업 선택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기관을 믿고 참여한 '내일에서 on 편지'**

이전 직장에 있던 동료와의 인연을 통해 함께일하는재단을 알게 됐어요. 재단이 계층별 일자리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을 하는 기관이라고 알고 있어요. 친구를 보고 기부를 결심하게 된 것도 있지만 실업이나 청년층을 지원하는 곳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부하는 금액이 조금이라도 가치 있는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각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르니까요. 특히,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부하고 있어요. 기관이 신뢰도가 있어야 제가 낸 기부금이 바르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고 지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관이 기부자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방식은 사업성과를 통해서라고 생각해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관이 꾸준한 사업들을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 기관을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부자들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 제 경우는 메일이나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편이에요. 우편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오긴 하지만 쌓아두고 잘 보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간간히 간행물이 발송된다면 제가 잊고 있을 때마다 이 기관에 내가 후원

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각심을 얻을 수는 있겠네요.

**사회사각지대 일자리 모델 마련 필요**

저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국가에서 청년층을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비부머 세대와 같이 혜택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지원금으로 제가 낸 기부금이 사용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지원이 되어 국가에서 혜택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평생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작은 일자리나 사회일자리, 모금회에 사용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노인 일자리는 있는데 50대 이후 퇴직자의 일자리는 없어서 이런 부분이 안타깝고 이런 대상층에 대한 일자리가 생겨서 모두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청년들 모두 꽃길만 걸길**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동시에 본인의 현실과 이상을 맞춰 나가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열

“제가 기부하는 금액이 조금이라도 가치 있는 곳에 쓰였으면 좋겠어요. 기관의 신뢰도가 높으면 기부금도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심히 준비했는데 계속 떨어지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사기 역시 떨어질 수 있거든요. 취업시장 속에서 제도적인 것들을 본인의 현실에 맞춰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주변에서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대기업을 선호하는데 중견기업들도 제도적인 측면이 마련돼 가고 있으니 맞춰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청년들이 모두 꽃길만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담을 하러 온 청년들에게 '이런 직업을 해라'라고 조언하기보다 저희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지는 본인들의 몫이에요. 본인이 생각하는 목표에 일단 도전을 해보고 나야 후회가 없고 끈기 있게 노력하면 결실을 맺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미래의 투자자를 모으는 '내일에서 on 편지'**

내일에서 on 편지는 일자리 사업을 하는 기업이나 인사팀에 추천해 준다면 좋을 것 같아요. 캠페인 측면으로 생각한다면 캠페인을 하거나 행사를 해서 단체 기부금을 모으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효과가 더 크겠죠. 동아리 모임이나 취업관련 코너에 부스를 차리거나 기업박람회에서도 대상층에 기금이 사용된다고 하는 형식으로 한다면 미래의 투자자를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작은 나눔이 모이면 큰 기쁨**

지금은 재단 이외에도 종교단체, 청소년과 관련된 곳을 후원하고 있어요. 나눔을 위한 일은 동기부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어야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니까요. 모금액으로 일자리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작은 금액이지만 그 돈이 모이면 큰 힘이 되니까요. 사회 어디든 필요한 곳에 작은 금액이 가치 있게 쓰이는 게 중요한 거죠.

저는 지금도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계속할 수 있는지, 가치 있는 일을 의미 있게, 즐겁게 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청년에게 보내는 편지**

취업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취업준비생 여러분, 저 멀리 터널 밖의 빛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겠지만 힘내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해 터널을 통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응원합니다.

앞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김용숙 드림-

“일단 작은 금액이지만 그 돈이 모이면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사회 어디든 필요한 곳에 작은 금액이 가치 있게 쓰이는 게 중요한 거죠”



비하인드 SHOW  
**내일에서 on 편지는 이렇게 기획됐습니다**

- Why 왜 만들어졌지?

개인 기부금을 확산하여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기부금으로 꿈을 가진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 How 모금은 어떻게 하지?

기부 키트를 전달하는 방식의 릴레이 기부 캠페인으로 기획되었으며, 캠페인 참여방식을 설명하고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기부증서를 작성하여 참여하게 됩니다.

- What 기부금으로 무슨 일을 하지?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 Story 내일에서 on 편지 이야기

아직도 주변에 '내일에서 on 편지' 캠페인을 모르고 있거나 기부를 망설이고 있는 지인들에게 새해에 좋은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세요. 내일에서 on 편지에 참여할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경영지원팀 02-330-0713)



**공항 이동약자 지원 포티케어 서비스**

재단은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공항을 이용하는 이동약자를 대상으로 포티케어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 영유아 동반자, 짐이 많아 이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공항 내에서 편리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채용인력의 50%를 60세 이상의 전문인력으로 선발해 시니어 일자리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안전한 공항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업 필수코스 대학생 취업잡(Job)이 프로젝트 2기**

재단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취업경쟁 속에 힘들어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대학생 취업잡(Job)이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2월 1일~2월 3일 간 진행된 취업캠프를 통해 최신 취업동향 정보와 함께 자기소개서 첨삭, 유형별 모의면접, 현직자 토크콘서트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이후 6개월 간 오프라인 취업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2018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은 2011년부터 사회적기업가적 자질과 사회적기업 창업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창업비용, 창업공간, 멘토링, 자원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해 사회적기업 창업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단계의 창업팀이 성장기에 도달하기까지 고관여 밀착형 멘토링을 통해 업종별 사업모델 구체화와 사회적 이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30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가치 인식 확산 사회적경제조직 클라우드펀딩**

사회적경제조직 클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조직의 대국민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후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멋진 20개의 기업이 2018년 4월 한 달 간 온라인 클라우드펀딩 플랫폼과 TV홈쇼핑을 통해 소비자와 만나게 됩니다. 클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잘 알리고 경영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취약계층 고용 Salta Programme**

재단은 자라코리아와 취약계층의 일자리 연계지원을 위해 Salta Programme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저소득자, 성매매 피해자,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원을 선발하며 전제 교육 수료 후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현장 투입 전 직업역량강화를 위해 셀프코칭, 이미지에이킹, 위생상황 대처 등의 교육이 진행됩니다. 재단은 앞으로도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착한 나눔 뉴이스트 (W.HERE) 앨범 기부**

뉴이스트는 2012년 데뷔 후 데뷔 6년차에 재조명을 받아 '여보세요'를 비롯한 기존 곡들의 음원차트 역주행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번에 기부받은 (W.HERE)는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온 멤버들의 첫 공중파 1위라는 꿈을 이루게 해준 특별한 앨범입니다. 기부된 앨범 1,000부는 재단에서 지원하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뉴이스트의 열정과 노력이 담긴 이 앨범이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어 기쁨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번 호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지난 호 독자참여 코너에 참여해 주신 애독자분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출참고> 독자코너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정답을 맞히신 분들에게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달콤한 잼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호 낱말퀴즈 정답]

		1스		
1미	안	마		
		2일	2자	리
3취	3업		서	
	무		전	

지난 호 낱말퀴즈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 당첨자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합니다.

**김지민(jimink73)      정은진(dmswls8410)**  
**김선아(danddalgi)      이현경(kamhk2134)**

작은 나눔으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 함께 동참해 주세요!

**정기 후원약정서**

이름 ..... 휴대전화 .....

이메일 ..... 주소 .....

납부방법  은행계좌  신용카드 후원금액  1만원  3만원  5만원  기타 .....원

[은행계좌 |

예금주 ..... 생년월일 ..... 출금일: 매월  10일  25일

출금은행 ..... 계좌번호 .....

[신용카드 |

명의자 ..... 카드사 .....

카드번호 ..... 출금일: 매월  10일  25일 유효기간 .....월.....년.....

개인정보는 기부, 회원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용도로만 사용되며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후원금 정기 출금, 후원금 영수증 발급 및 소식지 수신 등 후원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필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필수) CMS서비스(은행계좌 자동이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서명 ..... (인)

후원신청서 작성 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1544-0910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새롭게 후원을 시작하시는 회원님들에게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타이벡파우치를 선물로 드립니다.





99%를 위해 99%가 만드는 변화  
**시민 참여형 공익 투자 플랫폼, 비플러스(BPLUS)**



비플러스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공익사업에 대출을 통해 수익도 얻고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도 더할 수 있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서비스입니다.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과 기타 공익사업 등에 자선이나 기부가 아닌 투자(대출)로 자금을 지원하고 적정 수익과 함께 돌려받습니다. 정부, 대기업,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크라우드펀딩의 형태로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애인, 위기청소년, 유기견, 지역재생, 친환경, 전통문화, 에너지, 교육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누적 12억 원 이상의 대출을 진행했으며 총 520명 이상의 시민 투자자들이 참여했고 응원댓글, SNS 공유 등을 통해 참여 경험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재무, 금융지식에 취약하고 높은 은행 문턱에 지친 사회적기업들이 비플러스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회계사, 금융권 출신의 비플러스팀은 적절한 재무구조를 제안하고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투자, 큰 돈을 가진 누군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작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돈이 모인다면,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지지한다면 세상을 바꾸는 다양한 시도들은 꽃을 피우게 됩니다. 99%를 위해 99%가 만드는 변화는 이렇게 이뤄지지 않을까요. 이제 가치에 투자하세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젝트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비플러스는 함께일하는재단에서 지원하는 청년 창업가(기업) 대출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으로, 한전과 재단으로부터 대출자원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공익사업에 대출을 해서 수익도 얻고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도 더할 수 있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서비스입니다. 사회적기업의 가치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www.benefitplus.kr](http://www.benefitplus.kr)  
[www.facebook.com/benefitplus.kr](https://www.facebook.com/benefitplus.kr)